

# 화엄의 꽃 동자승 미소로 피어나다

### 수안 스님, 2월 4일~14일 호주 시드니서 전시

“사물을 관찰하면서 나를 돌아봐요. 마음 깨침을 통해 오직 여래의 길을 오고갈 뿐이죠. 이렇게 사물을 통한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의 정신을 그림으로 알려가고 있는 수안 스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전시를 연다. 통도사 해외포교당 호주 시드니 정법사 노인복지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전시는 2월 4일~14일 호주 시드니 체무스 콘코스 미술전시관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선화가, 수안 스님 작품 초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전시에서 스님은 불교의 보살을 동자승으로 표현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화엄경>을 바탕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을 동자승으로 표현했다. “동자승이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꽃이 그대로 미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 있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싹을 내니 꽃의 향기를 깨침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등을 동자승으로 표현해 대중들이 편하게 보살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소나무를 통해 가정마다 화목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았다. “산 위에 있는 소나무는 예로부터 하늘의 기운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가정의 안녕과 평안,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의 소나무를 표현해 보았 습니다.”

이번 전시가 의미 있는 이유는 통도사 해외포교당인 호주 시드니 정법사의 노인 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다는 점이다. 스님은 “호주 시드니 정법사 뒤에 주택을 구입해 노인복지원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 전시를 통해 수익금을



수안 스님은 문수·보현 보살 등을 동자승으로 표현해 동심의 세계를 그려냈다.

### 문수보살 등 동자승으로 표현 노인복지원 건립기금 마련 목적 3월 부산·서울에서도 전시 가자



진리의 뜻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는 의미 담은 '염화미소'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울과 부산에서도 노인복지원 건립을 위한

전시회를 연달아 열 예정인데 수익금 전액은 노인복지원 건립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법사 주지 기후 스님은 “그동안 정법사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민 1세대들의 노고와 여러 스님들의 원력이 큰 힘이 되었다. 신도분들이 노후를 수행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인복지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불사를 위해 기꺼이 전시를 열어주신 수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수안 스님의 전시는 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3월 9일~15일 부산 소민아트센터, 3월 21일~29일 서울 나무갤러리에서 각각 열린다.

한편, 수안 스님은 경남 통영 출생으로 1957년 출가 1964년 수계 이후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참선 정진했다. 한·중·일 고승 선문전, 프랑스 한국문화원 초대전 등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를 가져왔다. 현재 사단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이사로 영축산 문수원에 주석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hs@hyunbul.com

# 마음 풍경 화폭에 담으니 詩 되었네

### 김양수 화백 개인전 2월 4일~3월 13일

이른 새벽/ 거친 바람이 창문 앞에 서서  
인다/ 세상을 열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이 시간/ 마음 자리를 정돈하며 향하나 사  
른다./ 새벽, 사유, 성찰 그리고 치유/ 내  
가 붓을 드는 즐거움이며 지향하는 목적  
점이다/ 바람 소리에 귀를 세운다.

김양수 화백의 글 중에서



김양수 화백의 '염화미소'. 달빛을 따라가면 극락세계를 만날 수 있는지 묻지만 달빛은 미소만 보낼 뿐이다.

### <무진법문> <염화미소> 등 20점 수묵화로 내면의 깨달음 그려내 울 가을 시화집 출간도 예정

화를 나누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달빛이 내준 길 따라 저 언덕 넘어면 사시사철 꽃이 피고 새소리가 곁에 있는 아침에 이슬을 먹고 저녁에는 달빛을 먹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 작가가 달빛에 물으니 달은 그냥 웃고만 있다.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자연에서 답이 와요. 달은 이심전심으로 미소만 주었을 뿐이지만 저는 달을 통해 또한 깨달음을 얻죠.”

작가 내면의 기억들을 현재화시킨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기존의 그림들은 선적인 간결한 느낌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내내면의 풍경들을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유년시절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정서들, 농사 지으며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님, 함께했던 친구들 등 내면의 정서들을 그림에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길 끝에서 만난 작가의 내면 풍경들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분명 지난 시간의 기억을 두레박처럼 건져

올렸지만 그 과거는 고스란히 작가의 현재가 되어 화폭에 담겼다.

먹물로만 작업한 작품들은 배제된 욕망을 표현한다. 김 화백과 오랜 우정을 지켜오고 있는 소설가 정찬주 작가는 그의 먹 작업에 대해 ‘여백의 깨달음이 있는 그림’이라고 평한다. “색이 없는데도 색이 느껴지는 것이다. 먹물의 농담만 있을 뿐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연의 색들이 홀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김 화백의 진공묘유(真空妙有)로 말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다. 색을 버리고 대상을 비우면서 여백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김 화백의 화의(畫意)는 한 마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치열한 구도의 몸부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김화백은 그림의 여백 속에서도 비움의 미학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울 가을이 비움의 미학이 담긴 시화집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양수 화백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일본 독일 등 국내외에서 23회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가진 바 있으며 경기도 안성 적멸산방에서 명상하며 그림 작업에 임하고 있다. (02)540-8901 정혜숙 기자

# <직지> 간행처 흥덕사 역사를 돌아본다

### 국립청주박물관 테마전, 2월 22일까지 금고·향로 등 전시

국립청주박물관(관장 윤성용)은 ‘흥덕사, 금속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다’ 테마전을 2월 22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청주 흥덕사 발굴 30주년 기념한 이번 전시는 흥덕사 터에서 출토된 유물을 테마별로 보여줄 예정이다.

청주 흥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直指)>를 인쇄한 곳이지

만, 이름만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1985년 10월 8일 ‘흥덕사(興德寺)’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금고가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공개됐다. 여기서 ‘금고’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를 일컫는다.

이후 흥덕사는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과 역사적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못해 사찰의 성격과 그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흥덕사의 실체를 확인시켜준 ‘흥덕사’가 새겨진 금고와 발우뿐만 아니라 새롭고 과학적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대형 금고와 향로, 향안, 광명대, 종, 금강저 등을 모두 공개한다. 이들 불교의 식구는 발굴 전 공사 중에 파손되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사찰의 규모와 사세, 성격 등을 짐작하게 해 준다.

특히, 처음 소개되는 현향로(懸香爐) 3점은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청주 사비사



흥덕사터는 글씨가 새겨진 '청동 금고'가 발견되면서 흥덕사의 실체가 밝혀졌다.

의 현향로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 연구자료다. 더구나 현향로 3점을 불교법회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원주 법전사 터

출토 현향로의 명문 내용과 일치해 주목된다.

또한 보존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명문을

찾아낸 ‘응두사(龍頭寺)’가 새겨진 청동발은 고려시대 청주의 대표 사찰인 응두사와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이는 지역 사찰간의 상관성과 더불어 지역불교 문화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다.

신명희 학예연구사는 “흥덕사는 다양한 유물과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역 사찰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였으며, 금속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고 다양한 불교의식구를 제작할 만한 세력이 있는 청주지역의 중심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 흥덕사의 성격과 <직지> 간행처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며 전시의 취지를 전했다. (043)229-6300 정혜숙 기자

## 틀에박힌 성지순례 이젠 그만!

부처님 가피력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희망의 씨앗을 뿌려 드립니다.

1석 3조

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라오스·네팔 (1회차)  
태국·베트남·인도·부탄·인도네시아 (2회차)

부처님 가피력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희망의 씨앗을 뿌려 드립니다.

스리랑카 마한드라 라자팍스 대통령과 대담중인 청운대총사 크스님.

미얀마 세야도 윈니터 크스님 고아원 봉사를 하러가는 한국의 크스님들.

미얀마 양곤불교대학에서 명예철학사 학위 수여식 장면.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웨다곤파고다 순금이 90톤정도 부처님 세계문화유산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사무국

문의전화 1644-9079 상담자 직통 010-8288-1833 일광법사

후원 미얀마종교성 | 스리랑카종교성 | 캄보디아승왕청 | 라오스종교부  
네팔종교성 | 대만불교원각조계종 | 시)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여성가족부)  
주)어안상조 | 주)씨지투어 | 국제불교문화교류협회

## 탱화 청동불상 전문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